

인생의 도전에 직면함

작성자 : Vic Coleman

소개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기가 연이어 닥치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그분은 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 계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우리가 인생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가 그 도전이 무엇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과는 여호사밧 왕이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그의 생애에서 있었던 한 사건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는 공격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적절한 방어책이 없어 보였다. 그래서 그는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 중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일을 했으며, 그의 대응에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업에 사용된 성구

역대하 20:1-30

역대하 17:6

배경:

여호사밧은 BC 872년경부터 BC 848년까지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으로 있던 초기에 우리는 그가 주님을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전국에 교사들을 보내어 백성들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쳤다. 그 결과, 주님께서는 그에게 적들로부터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적들이 여호사밧을 둘러싸다 v.1-2

이 구절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여호사밧과 전쟁을 벌이러 왔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다른 그룹, 즉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므위니파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고, 질병 진단을 받고, 배우자가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이의 방에서 약을 발견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어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우리가 그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요점: 상황에 반응하는 것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상황에 대응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여호사밧의 위기 대응 v.3-6

처음에 여호사밧은 "놀라"었습니다. 이것은 위기에 대한 매우 전형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의 다음 행동은 적들에 대한 승리의 열쇠였습니다.

성경은 "여호사밧이 놀라서 여호와께 여쭈어 보기로 결심하고 온 유다를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였다"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주님의 인도를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온 백성에게 자신과 함께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첫 번째 단계는 "주님께 여쭈어 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성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마음의 성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이는 역대하 17 장 6 절에 "... 그의 마음은 주의 길에 바쳐졌더라..."

당신의 마음 상태는 어떠한가? 당신은 "주의 길"에 헌신합니까, 아니면 그분과의 관계를 "소홀히" 합니까? 주님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당신은 "정규직 직원"입니까, 아니면 "시간제 직원"입니까? 정규직 직원은 시간제 근로자가 누리지 못하는 특정 권리, 특권 및 혜택을 누립니다.

당신의 마음의 상태, 즉 당신과 주님과의 관계의 깊이는 당신의 싸움의 결과에 매우 중요합니다... 승리 또는 패배. 여호사밧은 적절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위기가 없는 시기에 그는 주님과의 관계를 돋독히 했다.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을 때, 그는 적절하게 대응했습니다... "주님께 여쭈어 보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구부러진" 것이 되어야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다른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비유: 오늘날 미식축구 팀은 상대 팀에 대한 "스카우팅 보고서"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pee-wee 리그에서 프로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경기 전 일주일을 보내며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합니다. 경기 시간이 되면 선수들은 준비를 마칩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기 위해 혼란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게임 플랜을 실행할 뿐이다. 효과적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경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한다.

"전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준비합니까? 전투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어쨌든 우리는 왜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 합니까?

우리 모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했을까? 하나님은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화가 난 것일까? 나를 벌하려는 것일까? 이것은 잔인한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나는 화가 낫어!"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들으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에도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 자체로 연구이지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에덴동산 이후로, 인간은 육체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부패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패괴되어 있다. 그는 그 본성에 의해 운영된다.
-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이나 건전한 층고나 상식에 불순종합니다.
-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수준으로 이끌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경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침략자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셨다. 그들은 죄에 빠졌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힘든 시기를 겪게 하신다. 바울의 생애를 읽어보면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을 겪은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에게 미리 말해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록을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위로, 힘, 지혜,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3-4 참조)
-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한다면,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우리는 아마도 이 장에서 "믿음의 영웅들", 즉 아브라함, 이삭, 모세, 다윗 등에 대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35-38절을 보십시오. 성경은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심지어 톱으로 둘로 쪼개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든 없든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영웅들" 중 일부는 지상 생활에서 고통을 겪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평안과 기쁨 속에서 영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모든 행동을 설명하지 않으셨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모든 행동을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주권에 굽복해야 한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굽복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의 기도의 핵심 요소들 6-12 절

- 일. 6 절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합니다... 그분의 주권과 능력과 권능.
- 이. 7-8 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신 일들을 개인적인 일지를 쓰는가? 여러분의 간증을 기록해 보는 것은 어떻겠는가?
- 삼. 9 절은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 사. 10-11 절은 마지막으로 문제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순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주목하십시오.
- 오. 12 절은 그분께 집중하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말해 줍니다.

전쟁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14-17 절

하느님께서는 여호사밧의 진실하고 진심 어린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는 여호사밧을 격려하며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싸움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5:16 참조)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일 때, 우리는 상황을 그분께 맡겨야 한다. 그분은 우리의 복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엇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믿고 순종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입니다.

칭찬이 올라갈수록... v. 21 – 22

여호사밧은 전쟁을 준비하면서 흥미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임명하여 주님께 노래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꼭 그런 감정은 아니었지만... 그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그분의 위대하심이나 그분이 과거에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인정하는 형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칭찬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이다.

22 절은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주님께서 그들의 적들에게 매복을 치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무대 뒤에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승리 v. 24 – 26

여호사밧과 유다 민족은 칼을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전투에서 승리한 후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무나 많은 전리품을 축복하셔서 그것을 모두 거두는데 3 일이 걸렸습니다.

요약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우리의 대응과 우리 삶을 위한 그분의 전반적인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임박한 자기 나라의 멸망에 대한 여호사밧의 반응과 그의 기도는 우리가 다음에 인생의 도전에 직면할 때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기도하기 시작하라. 1)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인정하고, 2) 그분이 과거에 당신을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3)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선언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이 필요합니다. 당신 혼자서는 할 수 없다, 4) 당신의 필요를 그분께 말하라, 5) 그분께 집중하겠다는 결심을 말하라.